

오늘의 말씀묵상

본문 : 로마서 13:8-14(현대인의 성경)

1. 말씀

- 8 서로 사랑의 빛을 지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것입니다.
- 9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한 계명 속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 10 사랑은 결코 이웃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 11 이제 여러분은 잠에서 깰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 12 밤이 거의 지나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악한 생활을 버리고 믿음으로 빛된 생활을 하십시오.
- 13 낮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처럼 단정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하는 일을 버리십시오.
- 14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2. 관찰

-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나 구절은 어떤 것입니까?

→ _____

- 하나님은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 _____

3. 메시지

- 바울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왜 해야 한다고 하나요?(8절)

→ _____

- 바울은 사랑은 무엇을 하지 않는다고 하나요?(10절)

→ _____

- 13-14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 _____

- 바울은 8절에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사랑의 빛'은 무엇인가요? 사랑을 실천하는 데 방해되는 나의 마음이나 태도는 무엇인가요?

→ _____

- 9~10절은 율법의 계명들이 결국 "이웃 사랑"으로 요약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했을까요? 내 안에 있는 이웃에 대한 판단, 무관심, 경쟁심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 수 있을까요?

→ _____

- 4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표현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것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 _____

4. 적용

-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는 무엇입니까?

→ _____

- 12~13절에서는 '밤'과 '낮'을 대비하며, 빛 가운데 사는 삶을 권면합니다.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어두움의 습관'은 무엇인가요? (술, 음란, 분노, 시기, 게으름 등) 그것을 벗기 위해 어떤 도움이나 변화가 필요할까요?

→ _____

5. **묵상 나눔**(아래 묵상 나눔은 함께하는교회 교인 한 분이 개인적으로 적은 묵상 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현재 묵상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참고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롬 13:8-14 (이웃 사랑, 마지막 세대를 사는 성도의 지혜)

사랑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는 바울의 간곡한 권고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구원을 받은

‘사랑에 빛진 자들’인 우리는, 하나님께 진 빛을 다 갚을 수 없기에 끊임없이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나의 이웃을 진정한 이웃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가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세상은 경건한 삶을 쉽게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혹과 덧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을 지니고, 자신이 그분께 속했음을 드러내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어느 시점부터인지 ‘말세’라는 말을 자주 듣고 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말을 점점 더 많이 듣게 될 것이며,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특히 심한 시기라 하여 ‘말세지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를 바울은 다음과 같이 예기합니다. “사랑하고 깨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라고”. 사랑을 행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이루었다는 바울의 말에 공간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사랑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그런 자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재림이 가까웠으니 그리스도를 닮아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거룩한 길로 행하라”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보며, 사랑 한다 입으로는 말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없던 나를 보게 됩니다.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기도가 부족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긍휼로 새사람 입기를 소망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벧전 4:7)

6. 기도